

인권, 포기할 수 없었던 걸음들.

강용주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인권의 가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번번히 현실에서 부정되고 훼손됩니다.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인권의 가치를 어떤 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아시아 여러 나라들처럼 과거 경제난과 함께 군부독재정치라고 하는 암울한 시절을 겪어야 했다. 특히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 대립하는 분단 상황과 맞물려 수많은 정치범과 사상범이 탄압받고 투옥되었다. 그 대부분이 고문 강압수사 등으로 조작된 사건이었음이 최근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나 법원의 재심판결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광주 5.18 등 국가 폭력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목적으로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세워지기에 이르렀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 관련자 뿐만 아니라 국가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치유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오고 있다.

강용주. 그가 광주트라우마 첫 센터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그를 아는 모두가 가장 책임자로 적극 환영하였다. 강용주 센터장 자신이 고문 조작사건의 희생자이며 이를 극복하고 의사로서, 인권운동가로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치유와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시민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그는 광주 5월 민주항쟁에서 시민군이었고 구미유학생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한 고문 생존자이며 비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도를 거부하고 14년 간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온 우리나라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이다. 현재 그는 법인 단체 진실의 힘과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국가 폭력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며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현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재활 치유 트라우마 센터가 광주에 2012년 설립 되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한국처럼 이행기 민주주의를 거친 남아공이나 칠레, 아르헨티나에서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국가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치유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민주정부 10년 동안 치유센터가 없는 과거청산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희생자관점'이 결여된 물질주의적 과거청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트라우마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온전한 과거청산을 위한 첫 발을 디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생자를 중심에 둔 과거청산의 시작이지요. 보건복지부와 광주시가 매칭펀드로 함께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재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부족하나마 실현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용주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광주트라우마센터

-처음 광주트라우마 센터장 자리를 제안 받았을 때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미 [재단법인 진실의 힘]을 통해 조작간첩, 감옥살이, 고문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셨지만 518 민주화 항쟁과 관련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세워진 광주트라우마센터는 또 다른 의미일 거 같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80년 오월, 저는 고등학생으로 우연한 기회에 광주항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 저를 518에서 도망치게 했거든요. 세월이 흘러어도 여전했습니다. 광주로부터 멀리 있고 싶었고, 518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돌아 제가 서야 할 자리로 가게 되었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재단법인 진실의 힘]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고문치유모임을 인권운동가와 전문의료인들과 함께 시작했던 것도 광주트라우마센터로 향하기 위한 운명적 준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면 잘 해야 하고, 우리 나라 최초의 광주트라우마센터를 모범적인 치유센터로 만들고 싶은 바람도 생겼습니다."

-강용주 센터장님에게 5월 항쟁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쟁은 어떤 영웅적인 개인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무수한, 평범한 개인들이 이뤄낸 대동세상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부족하고 결점투성이일지라도, 518당시 집단적으로는 완전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518은 나쁜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위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518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과 희생, 헌신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좌절을 뚫고 민주화를 이뤄낸 한국의 모습에서 아시아 많은 나라들 또한 영감과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체포되었습니다. 구미 유학생 간첩 사건으로 조작 되었고 그를 위해 남산에서 35일간 고문을 당해야 했고요. 그 기억을 물어봐도 될까요?

"도청이 계엄군에게 점령되었을 때, 저는 총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죄책감이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생운동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 때 대통령이 학살자 전두환씨였거든요. 그런데 1985년 6월말 남산 안기부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달 넘도록,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폭력에 굴복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개가 되었어요. 또다시 내 영혼은 쓰레기통 속에 처박혀 버렸습니다. 전두환에게 굴복하고 말았다는 자괴감과 좌절이 고문의 끔찍한 기억만큼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광주 망월동에 누워있는 518 영령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저를 감옥살이 13년 8개월 내내 전향제도 폐지를 위해 굶고 싸우게 만든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의 시간으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치유해주면서 강용주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국가 폭력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올바른 치유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공감과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감과 지지는 안전한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안전한 환경은 진실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다시는 고문과 같은 야만적인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재발방지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일입니다. 특히 치유의 힘은 바로 고문생존자와 그 가족 내부에 있다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유는 고문생존자가 갖고 있는 그 내적 힘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돕는 일입니다."

-5월 광주 항쟁, 조작 간첩, 관련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 절차 뿐인 재판, 그리고 무기형. 국가 폭력을 여러 차례 겪었음에도 비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도를 거부하며 국가권력에 다시 맞서신 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두렵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옳은 것에 목소리 내는 사람에게 국가가 어떤 모습인지 너무 가까이 봐온 사람이시잖아요.

"너무 두려웠어요. 전향하지 않으면 죽어야 감옥 문을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서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청에서 도망치고, 안기부에서 무릎 꿇은 내가, 광주 망월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전두환씨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전향제도와 싸우는 것이었지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았고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흔들거리며 주저하면서 비틀거리면서, 마침내 전향을 하지 않고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양심을 지키는 일은 전 존재를 거는 일이었고, 518 망월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죄목으로 형을 살던 사람들이 감형되어서 나가는 걸 보거나 전향서를 거부하여 오랜 시간

감옥 내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흔들림 없이 비전향 장기수로 14년을 복역하고 나오셨습니다. 그 당시 그 기분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음. 처음에는 전향제도와 싸울 때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죽어서야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서요. 한 10년쯤 싸우고 나니까, 아, 이제 이미 이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몸은 갇혀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이겨버린 싸움을 하는 중이어서 출소는 시간 문제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1년일지, 5년일지, 10년일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1999년 2월 25일, 안동교도소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정말 흥가분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갇아야 할 빛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망월동 518 영령들께 부끄럽지 않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 전 존재를 걸고 싸웠던 일에 승리를 확인하는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13년 8개월 감옥살이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웃음)"

-그 싸움 속에서 함께 서계셨던 어머니, 갈등의 요인으로서 극복대상이기도 하고 힘의 원천이기도 하셨을 듯 합니다. 센터장님께 어머니는 어떤 분(존재)이신가요?

"어머니는 9남매를 낳으셨는데,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홀로 9남매를 키우셨는데 저 혼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 제가 졸지에 '간첩'으로 조작되어, 무기수라는 기약 없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아득하지요. 어머니는 제 감옥살이 내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딱 한번 제 앞에서 우셨는데요, 1998년 8월 15일 전향제도가 폐지되고 준법서약제가 도입되었을 때입니다. 어머니는 궁금하셨을 겁니다, 전향제도 폐지되었으니, 나올 수 있는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그랬습니다, 이 악물고요. 준법서약제도는 전향제도의 변형에 불과했고, 저는 그것도 거부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죽음 같은 고통의 시간에, 딱 한 사람,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딱 한 사람,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의대에 다시 복학하고 전문의를 취득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센터장님과 비슷한 고문을 겪고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 곁으로 고문치유모임, 진실의 힘을 만들며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출소할 즈음, 아내가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라는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7, 80년대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 사건의 재심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고문피해자 치유문제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고문 조작된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 기억을 해내야 하는데,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곧 '재트라우마'거든요.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심리치유를 해야 했습니다. 정신과의사, 임상심리학자들을 찾아 다녔고, 함께 공감했던 분들과 고문치유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재심을 준비하는 변호사도 함께 참여했구요. 고문피해자 집단 상담을 재심재판과 아울러 약 5년 넘게 진행했는데요. 그게 진실의 힘 모태가 되었습니다. 고문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면서 고문생존자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고통스런 삶을 원천으로 삼아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상

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과정이 곧 진실의 힘을 설립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성장의 공동체, 고문피해자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되찾은 힘, 그것이 곧 '진실의 힘'입니다."

-다시 트라우마 센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국내 최초의 트라우마 치유 센터인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현재 어떤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이 트라우마 센터가 어떤 위상과 역할로 자리매김 되길 원하시나요?

"저희 센터는 크게 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치유재활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옹호활동을 통한 국가폭력 예방사업입니다. 치유재활 사업은 심리적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예술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활을 위해 마이데이, 사진치유 등을 진행합니다.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치유의 인문학, 심리치유 워크숍 등 인권증진 옹호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주년을 맞아 센터는 첫째, 치유기관으로서 전문성 강화, 둘째, 독립적인 상설기구화와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치유센터 건립, 셋째, 국제적인 연대와 교류 강화로 한국 최초 트라우마 센터를 넘어 아시아 트라우마 치유 허브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3년 밖에 되지 않았고, 올해 처음으로 IRCT에 가입한 신생조직이지만 그 비전만은 높고 크게 갖고 싶군요. 518이 아시아 민중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듯, 광주 트라우마센터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져주세요."



▲치유프로그램 '마이데이'
©광주트라우마센터

-5월 항쟁 시민군, 비전향 장기수, 세계 최연소 무기수, 진실의 힘 상임이사, 의사,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강용주 센터장님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참 다양합니다. 한국의 자유와 민주, 인권의 역사가 담겨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한 가치들은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미완의 목표로 많은 투쟁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끝으로 강센터장님의 개인적 소망이나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인권의 가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번번히 현실에서 부정되고 훼손됩니다.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인권의 가치를 어떤 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문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꿈도 그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꿈은 우리가 더불어 꿀 때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 두발을 딛고 뜨거운 심장과 냉철한 머리로 실천해 나갈 때 '다가온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인권을 향한 머나먼 여정에 우리 서로가 동반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 신지원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인턴.